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
----------	------

발의연월일 : 2024. 7. 16.

발 의 자 : 정청래 · 한민수 · 신영대
한병도 · 이성윤 · 이병진
김현정 · 백승아 · 이언주
조 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 동물의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기록 열람 등) 동물의</u> <u>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받은</u> <u>동물에 관한 기록(추가기재 ·</u> <u>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 수정된</u> <u>기록 및 추가기재 · 수정 전의</u> <u>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u> <u>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u> <u>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u> <u>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u> <u>있다. 이 경우 수의사는 정당한</u> <u>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u> <u>서는 아니 된다.</u>